산 북쪽 기슭의 화방사에서 산행을 시작했다. 화방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숨진 순국 장병들의 영혼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던 호국사찰. 이 충무공이 순국한 관음포가 이곳에서 멀지 않다.
화방사 옆을 지나 남서쪽 방향으로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는 정상까지 3km 정도 거리이고 느린 걸음으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.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는 산 동쪽 기슭의 오동마을, 아산마을, 남해읍내 근처 남해여중 부근에서 시작하는 길 등 여러 길이 있는데 화방사에서 시작하는 길이 거리가 가장 짧다.